

건조 1년도 안된 배...침수 신고 7분만에 급격히 침몰

사고 원인 미스터리

파고 높지 않고 암초도 없어

생존자 “10분만에 기관실 물 가듯”

짐들 영커 선미 선원들 못 빠져나와

위치발신장치 브이패스 작동 안해

지난 4일 신안군 입자면 해상에서 전복돼 9명이 실종된 통발어선 '정보호'는 응급조치가 불가능할 만큼 빠르게 침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호는 건조된지 1년도 안된 어선이라는 점과 사고 당일 파고와 날씨 등 기상조건이 나쁘지 않았고 사고 지점에 특별한 암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고 원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첫 침수선박 신고는 4일 밤 11시 19분께 접수됐으며, 이후 11시 26분께 단 7분만에 “선박이 전복되고 있다”는 후속 신고가 접수됐다.

생존자 또한 선원들이 침수 사실을 파악했을 때 정보호는 이미 손쓸 수 없이 빠르게 침수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직접 만난 생존자 유모(48)씨는 “4일 밤 11시께 정보호는 어정도 남쪽 해상에서 어장을 배에다 신는 작업을 마친 뒤 추자도

쪽으로 향해 중이었다”면서 “당시에는 별다른 충돌음이나 충격 없이 순항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밤 11시 20분께 기관장이 기관실에 물이 차고 있다며 모든 선원들을 불렀는데, 이때는 이미 기관실에 물이 빠른 속도로 차오르고 있는 상태였다.

기관장은 일부 선원들과 함께 기관실로 가 물을 퍼내려 했지만, 전기 시설이 먹통이 되면서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원들은 대부분 선장이 있는 선미 쪽에 몰려 있었는데, 배가 45도 이상 기울어지자 이들은 선미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유씨는 설명했다.

선내 통발·어장 작업에 필요한 짐들이 뒤엎려있는데, 선미 쪽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합판으로 막혀있었다는 것이다. 5일 현재 아직 선미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구조되지 않았다.

정보호는 지난해 4월 진수한 배로, 건조한지 1년도 안 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정보호는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이용해 항해 중이었으며, 항로를 이탈하거나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해경 설명이다. 인근 해역은 파고 0.5~1m 수준으로 파도가 높지 않았으며, 날씨도 맑아 뚜렷한 외부 위험요소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위치는 수심 25~30m 수준으로 특별히 암초가 많은 지역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또 생존자들과 해경은 선내·외에서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파손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침수 당시 브이패스(V-pass) 경보도 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브이패스는 출항·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어선위치발신장치인데, 선체에 강한 충돌이 감지되는 등 사고 발생 시 인근 경찰서 상황실 및 파출소로 경보를 보내주는 기능도 있다.

해경은 배가 전복된 이후에도 별도의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보호에 브이패스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브이패스를 꺼둔 채 AIS만 켜고 항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선원들의 증언을 종합해 정보호의 구조적인 문제가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생존 선원들은 평소에도 정보호에 침수가 반복됐고 출항 당시에도 배에 기우는 이상 현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배 오른쪽 엔진이 좋지 않아 엔진이 있는 기관실에 물이 종종 샐고 출항 직후에도 물이 새는 현상이 있었지만 양이 많지 않아 그대로 운항했다는 것이다.

한 생존 선원은 “출발했을때부터 배가 좌측으로 기우는 이상이 있었고 배가 5도 정도 기울어 기관장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정보호를 인양해 구조적인 부분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으론 사고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안·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5일 오후 신안군 입자면 재원리 대비치도 해상에서 전복된 '정보호'의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 목포해경과 해군 해난구조대(SSU) 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신안·김진수 기자 jeans@



김해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이 5일 목포시 산정동 목포해양경찰서 회의실에서 신안 어선 전복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안·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선체 이탈 바다 표류 가능성 커...구조 골든 타임 24~36시간

실종자 9명 어디에

정보호 실종자들의 생존 여부와 함께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얼마나인지가 관건이다.

해경 등 구조 당국은 실종자 대부분은 선체에서 이탈해 바다에 표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선수에 3명, 기관실에 3명, 선미에 6명의 선원이 각각 있었으나 구조된 선원은 선수 쪽 3명뿐이다.

9명은 갑판에 있다가 전복과정에서 이탈했거나, 일부는 선체 내부에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 당국은 선체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표류 가능성에 대비해 조류 흐름 등을 고려하면서 해역 수색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다.

해경은 만약 선내에 실종자가 남아있다면, 선실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선내 실종자 생존을 도울 공기주머니(에어포켓)가 선체 내부에 있는지 여부는 현재 알 수 없다.

해경은 생존 가능성이 높은 골든 타임을 24~36시간 수준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사고 해역 수온이 8~10도 수준인 것을 바탕으로 계산한 것으로, 골든타임을 생존자가 못

을 얼마나 두렵게 겪었는지, 보호장비를 착용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구조 당국은 해경 대원 외에도 해군 해난구조대(SSU) 등도 현장 투입됐지만, 조류와 펄로 수중 시야가 제약되고, 통발 어구 3000개와 다른 어망 등이 내부로 가로막고 있어 진입 자체가 쉽지 않다.

또 선체 구조가 격벽 구조로 돼 있어 뚫기 어렵고, 기관 장비까지 가로막아 절단 작업 후 수색도 쉽지 않아 조타실만 겨우 수색을 마쳤다.

/신안·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뱃일 1년만 더 한다더니...꼭 버텨내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실종자 가족 애타는 구조 호소

“살아만 돌아와 주세요”

신안에서 전복사고를 당해 실종된 정보호 선원들의 유가족들이 모인 목포수협 2층 대기실에서는 연신 흐느끼는 소리가 이어졌다.

실종자 가족 10여 명은 사고소식을 접하고 5일 새벽부터 실종자 대기실에 모이기 시작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바닷물이 찬 데 최대한 빨리 실종자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하고 있었다.

정보호의 선장 A(50)씨의 처남 B(40)씨는 실종자 가족 대기실에서 연신 물을 들이키며 인해 실종자의 소식이 들려줄지 모른다는 생각에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에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인 A씨가 야마 끝까지 구조조치를 하다가 사고 현장에서 탈출하지 못했을 것 이라는 게 B씨의 설명이다.

사고접수 30여 분전인 4일 밤 10시 50분께 선장 A씨는 누나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화 통화당시 사고여부는 알지 않고 가족들의 안부만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어머니의 건강 걱정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아내와 상의해 아직 장모님께 A씨의 실종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80대 후반의 노모가 쓰러질까 걱정돼 생사가 확인되면 그때 가서 알리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호에 기관장으로 탑승했던 C(64)씨의 아내 D(여·64)씨도 양손으로 눈 앞을 가리며 흐느끼고만 있었다.

D씨는 C씨와 지난 1일 마지막 연락이 닿았다고 한다. 평소처럼 안부 전화를 하며 “진도에 정박했다. 연락하겠다”고 한 것이 C씨의 마지막 말이었다는 것이다.

D씨는 “남편이 이제 바닷일이 힘들다면서 1년만 더하고 내년에는 은퇴하고 쉬겠다고 했었다”면서 “언제나 가족생각을 하며 모든 일을 버텨냈으니 힘들겠지만 이번 사고도 버텨서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울먹였다.

/신안·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문어 등 잡는 24t급 통발 어선...배에 수확된 소라만 700kg

보호는 진도 서망항에서 출발해 인근 해역에서 소라잡이를 마친 뒤 추자도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에 수확된 소라만 700kg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여기에 어장무게까지 더하면 배의 무게는 더욱 무거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호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며 748마력에 길이 21.75m, 너비 5.18m, 깊이 1.44m 이다.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져 강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정보호는 어선법에 따라 중간검사는 2년 6개월, 정기검사는 5년 주기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한국선급에서 진행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건조된 정보호는 검사 시점이 다가오기 전 사고가난 것으로 추정된다.

/신안·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지난 4일 밤 11시 19분께 신안군 입자면 재원리 대비치도 서쪽 16.6km 해상에서 24t급 근해통발어선 정보호가 전복돼 선원 3명이 구조되고 9명이 실종됐다. 사진은 5일 오전 인근을 지나던 화물선 광양프론티어호가 어선 선원들을 구조하는 모습. <독자제공>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O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22타경 2589	1	순천시 왕지3길55,108동19층1904호 [왕지동 아파트], 순천두산위브아파트]101.8244㎡	540,000,000 540,000,000	
2022타경 378	1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544-4 149㎡ [윤창대 호1/3지분전부] 광양시 광양읍 유당로 47 단층[충죽부분: 주택, 공유자우선매수권 1회제한] 실 8.5㎡ [윤창호 1/3지분전부]	81,516,350 81,516,350	일괄매각, 지분매각, 채시외건물모략, 공유자우선매수권 1회제한
2022타경 5144	1	순천시 별말면 대곡리 617 962㎡ [연고미 전]	65,954,000 65,954,000	농지취득자격증명, 신분요소 재로분묘기지권정립여지있음, 채시외수목포함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22타경 57367	1	사용면적지:광양시 광양읍 인서2길14 동 144㎡ 면적:40.04389 차령·말리부 연식:2017 배기량:1,490cc 차량상태:외관상누년하나내방장치를결여해한상태내역미상 사용연료:휘발유 기타[음성통]:기본형출승구버렸으나후방카메라미부착 사고이력:보험개발원제공중고차사고이력정보보고서상내치폐3회4,660,558원상대차치폐1회653,400원 주행거리:자동차계기판상119,146km	자동차	14,000,000 14,000,000	보관:순천시해운면복성리469-101 수자자동차매매승계내 [제3차이영균에게보관061-743-2227], 검사유료기준:2021.1.16-2023.1.15

- 공고의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특별매각조건
-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 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 ② 공표후의 우선순위(인사입찰법 제36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패하는 경우 그 공표후의 그 이후 해당 물건의 매각에서는 우선순위를 행사할 수 없다.
- 1. 매각기일 : 2023. 2. 20. [월] 10:00
- 2.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층공매장
- 3. 매각방법 : 공표방법에 따른 순찰방문
- ④ 입찰방법에 비추어 기밀정보에 대한 보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비밀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행위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기과 발행의 지참수표 또는 현금 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유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일 보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 ⑤ 2인 이상에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명부에 각자의 지분을 명백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⑥ 입찰보증의 투입이 완료되면 관공에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매수신청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기밀정보를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 ⑧ 최고매수신청인과 그 지위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자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정자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 5.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채무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잔여지, 비용 등을 납부하면 대금납부에서 자유하며, 또한 채무자는 매각이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③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당권, 가압류등은 순번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통째로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통째로 매수확인서 및 통째로 매수확인서 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 ④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어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상대방은 매각이 실시되는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7. 주의사항
- ① 매각허가 또는 그 이전일에는 매각물건의 지당권 등이 설정된 날보다 먼저 주채권등권설정일과 일치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 자득권설정 등 다른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② 일반인등의 열람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열람,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인사 집합실에서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입수한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입찰청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필요로 하는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보증금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고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최고매수신청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양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⑥ 공고의 물건등에 매각하기 전에 경매신청이 취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및 입찰에서 제정합니다.
- ⑦ 신청을 공고되는 물건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의,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신청에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⑧ 매각결정일과 매각허가, 잔여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매각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공매정보센터 * 법원공매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장려하지 않으나 다른 것들 국외민원을 위하여 무료 제공하는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불가, 산회이나 불공, 대금지급신청이나 중재청구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분은 이를 고려하여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꼭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3.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호관 서두현